

도서관학에서 정보학으로

도서관 환경의 변화 반영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문헌정보학이란 이름은 시대를 앞서가는 용어였다. 도서관학을 대체한 이 말도 이제는 낡았다는 느낌을 준다. '문헌'을 떼어버리고 정보학으로 독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학문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옛 문헌의 정리와 이용, 새롭게 접근한 도서관의 역사 등을 다룬 책들은 변화하는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말해주는 증거물이다.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한울)는 글쓰기의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우리 학문(문헌정보학)이 현실(도서관)의 개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성에 기초한 네 편의 글을 수록했다. 김정근 교수(부산대 문헌정보학과)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공동작업이다.

글쓰기 혁신의 일반론을 개진한 다음, 이론을 입상에 적용한 글쓰기 사례 3편을 담았다. 책 제목에서 학술연구를 문헌정보학 연구로 바꾼 일반론은 '논문중심주의'와 '원전중심주의'에 만족된 학문 연구 풍토의 고발에서 출발한다. 문헌정보학에서만도 서양문헌을 짜깁기하거나 서양문헌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고는 가부를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이 땅의 제반 현실을 규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질적연구방법'과 '잡스러운 글쓰기'를 제안한다. 글쓰기를 혁신한다고 할 때 혁신의 대상과 표현양식으로서의 문제, 그리고 문제에 담길 내용과 연구방법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질적연구와 잡스러운 글쓰기라는 것.



강순애 교수(한성대 문헌정보학과)의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이용》(아세이문화사)은 옛책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분류체계를 환기하고, 목록체계의 전산화에 중점을 두었다. <고서의 개념> <고서의 분류> <고서의 목록> <기존 시스템의 운용과 평가> 등으로 구성.

문헌의 분류는 동양문헌의 분류에 맞는 사부분류와 KDC를 대비해 둘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게 했다. 고서목록의 구비조건, 기술규칙, 목록DB의 구성과 검색, 전자파일과 전자통제시스템 등의 문제를 다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 정보시스템과 성균관대의 고서/고문서 정보시스템도 소개해 고문헌을 전산화하고 정보이용을 하려는 이들에게 이정표 구실을 한다.

배현숙 교수(계명전문대 문헌정보과)의 《정보문화사》(아시아문화사)는 서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동·서양의 정보문화를 망라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서관사'가 형태가 있는 정보에 치중했다면 정보문화사는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 전달체계를 다뤘다.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갖는 동·서양의 정보문화사도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데 고대에는 견고한 매체에 기록하고, 다음에는 더 유연한 매체에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쇄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전자매체로 전달하는 것이 오늘

의 상황이다. 이 책은 정보전달방법과 문화적 특질에 유념해 정보전달의 발달과정을 각서시대·사본시대·인쇄본시대·전자매체시대로 나눠 서술했다.

건국대 중원도서관 김교갑 부관장의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집문당)에는 30년간 도서관 업무를 맡아온 실무자의 경험이 녹아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도서관 견학기와 건국대 상허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빼때를 이룬다.

《세계의 도서관 견학기》는 미국·일본·독일·러시아의 도서관에 대한 보고서로 미국 국회도서관,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서관, 뉴욕타임즈 정보은행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서관과 가네자와 대학 라이브러리 센터와 쓰쿠바 대학도서관 등의 일본의 대학도서관을 소개했다.

건국대 상허도서관 건축과 관련해 개인적인 바람과 건립위원회 사무국 자료 및 저자가 국내의 대학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도서관 건립 계획안도 수록했다. 특히 상허도서관 현상설계를 위한 지침서를 부록에 담아 새로 도서관을 지으려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최성일 기자

한양아트콤!!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 대형 드럼스캐너에 의한 고해상도 원고 입력 서비스 최신형 출력기에 의한 빠른 분판film 출력서비스로 사용자 여러분들을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저희 한양아트콤에서는 최신형 기계와 최고의 기술로 고품질의 입·출력 서비스를 24시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양아트콤!
전화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 원색 분판 출력
- 원색 스캔 입력
- CD 입력
- 이미지 합성 리터칭

한양아트콤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96-16
TEL : (02)275-6226 (대표)
FAX : (02)268-6972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어른용 동화

부담없는 부피, 시각적인 즐거움에 잔잔한 감동까지

요즘 서점의 신간 진열대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폴링업》(사계절) 《골무가 하느님이 된 이야기》(작가정신) 《팽귤나라의 공작새에 관한 짧은 보고서》(바바라 BJ 헤이틀리 외, 아세아 미디어) 《잊혀진 시간》(J. M. 바스콘셀로스, 두로) 등이 최근에 나온 어른을 위한 동화류다. 이 책들은 속도와 경쟁에 지친 어른들에게 “가끔씩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재미있는 일”임을 느끼게 한다.

스테디셀러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저자 셀 실버스타인이 내놓은 《폴링업》은 제목처럼 ‘하늘로 뚝뚝 떨어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독특한 그림과 엉뚱한 상상력에 기댄 짙막한 내용이 읽는 이에게 여러가지 감상을 준다. 크리스마스에 집을 지키는 개에게는 산타클로스도 낮모르는 침입자이듯 사물이나 어린이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큼직한 글씨와 우스꽝스러운 그림은 엉악없는 어린이용이지만, 영어의 뉘앙스를 이용한 재치있는 이야기나 어린이가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 어른용이 분명하다.

《골무가 하느님이 된 이야기》는 릴케가 스무세 살 때 7일 동안 쓴 동화. 각기 독립된 13편의 동화가 들어 있는 이 책은 원제목(신의 이야기)처럼 흔하고 천한 것들 속에 존재하는 신을 그렸다. 화자가 이웃 아주머니, 절름발이 친구, 동네 학교의 교장선생님 등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동화들은 반드시 어린이에게 들려주도록 끝을 맺고 있다. 가난한 조각가에게만 보이는 태초의 인간모습, 골무를 하느님으로 정한 아이들이 하찮은

골무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모습 등은 사물을 다시 보게 하는 순수함을 되살려 놓기에 충분하다.

《잊혀진 시간》은 예전에 소개되었던 《유리의 마음》을 새로 옮겨 선보인 것. 의인화된 주인공 파랑새, 금붕어, 망아지, 망고나무가 등장해 저마다 ‘잊혀진 시간’을 그리워 한다. 호기심 때문에 숲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새장 속에 갇힌 파랑새는 이름답고 자유로웠던 숲 속의 시간을 그리며 죽어 가고, 망아지는 경마장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다리를 다친 후 쓸쓸하게 죽어간다. 농장의 망고나무는 어린 시절을 함께 한 농장집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지만 실패자가 되어 돌아온 아이는 망고나무와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한다.

‘형식적이고 관료적이며 방대한 성문법과 불문율로 지배되는 냉랭하고 조직적인’ 현대사회를 풍자한 《팽귤나라의 공작새에 관한 짧은 보고서》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작가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은 노동력의 다양성이라는 사회학적인 주제를 우화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조직화된 사회 즉, 팽귤나라에서 공작새처럼 ‘남다른 깃털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팽귤나라에서는 공작새든 타조든 그들이 결코 그들 자신이 될 수 없다. 다른 깃털을 가진 새들은 서로를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진 나라를 찾아간다. 그곳은 ‘피상적인 잣대로 서로를 심판하기를 멈추고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능력, 가치를 평가해주는 나라’다. 저자들은 팽귤나라는 전세계 모든 회사와 조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책을 끝내고 있다.

부쩍 어른들을 위한 동화 출간이 활발한 것은

그 책들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알팍한 책 두께, 간간이 들어간 그림, 큼직한 글씨와 여백이 많은 지면 구성 등은 스트레스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도 책을 읽는 잠깐만이라도 어른이 되면서 잊어버린 아름다운 마음을 되살려 놓는데 큰 강점이 있다. 한번 읽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깊은 뜻이 우러나는 좋은 어른용 동화가 나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현주 기자



셀 실버스타인의 《폴링업》 중에서.

비즈니스맨 파워

출판전문인력 서비스

필요한 시간에만
출판전문가를 빌려 쓰십시오!

각 부문별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전문프리랜서 모집중!

부대비용없는 현실적 인건비!
3년이상 실무 경력자의 빠르고 질높은 업무처리!
1991년부터 쌓아온 한국프리랜서그룹의 노하우가 보장합니다.

한국프리랜서그룹의 고품질 출판전문인

- 출판 - 출판기획, 편집(DTP), 교정, 교열, 사보기획, 제작
- 라이팅 - 대필, 리라이팅, 사사집필, 취재대행
- 디자인 - 표지디자인, 카툰, 일러스트
- 번역 - 각국어 출판물 번역



전문인력 서비스 Since 1991

(주)한국프리랜서그룹

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1105호 TEL : (02)784-4447(대) 팩스 : 784-4404
대전지사 : (042)823-7248(대) 팩스 : 823-2012 부산지사 : (051)818-0603 팩스 : 809-3948